

국제 브리핑 비교를 통한 한국어 영어 화용 능력 고찰

한지원 (부경대학교)

1. 연구 목적

Jenkins (2002)에 따르면 비원어민 화자들은 영어 사용자와 영어 학습자로 분류된다. 비즈니스 교육과 같은 전문 그룹에 속하는 전문가 영어 사용자는 영어 학습자와 구별되며 이들은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 구사력을 지닌다. 또한 이문화간 화용연구에서는 화용 능력은 문법 지식과 다르게 관습 문화적 인식과 같은 인지 활동에 기반을 둬으로써 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비원어민 화자들이 또한 높은 화용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된다. 이들은 여러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화용 인식을 높이고 상호 적용을 통해서 의사 소통 능력을 가지게 된다. (Kecskes 2015).

완화 장치는 여러 화용적 장치 가운데 화자 간 의미를 교환함으로써 관계적 의미를 형성하는 기능을 지닌다. 문장 및 문장 구성 요소들을 수식할 뿐 아니라 화용적 관점에서 화자의 견해나 태도를 표현한다 (Coates 1993; Holmes 1990). 따라서 완화 장치는 문장의 의미는 바꾸지 않으면서 메시지의 톤을 조절함으로써 상호 관계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단순히 의미만을 교환하는 게 아닌 화자 간 견해와 태도를 교류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화 장치의 원활한 사용은 화용 능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전문가 영어 사용자들의 화용 능력 이해를 위해서 두 종류의 브리핑 자료를 구축 영어 원어민 화자들과 비교해 본다. 국제 보건 기구 (WHO)과 미국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 코퍼스 자료 안의 완화 장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백악관 브리핑 자료와 국제 보건 기구 (WHO) 코퍼스내 완화 장치 사용 실태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코퍼스 자료 내 완화 장치 사용 빈도수를 비교하고 국제 보건 기구 내 실제 사용 실태를 알아본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 영어 사용자의 화용 능력에 대한 이전 연구에 대해서 실제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화용 능력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요 질문으로

- 1) 백악관 브리핑과 국제 보건 기구 브리핑 내 완화 장치 빈도수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 2) 두 종류의 브리핑 코퍼스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 3) 연구 결과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영어 화용 능력은 무엇인가?

2. 연구 배경

2.1. 브리핑 담화 속 완화 장치

브리핑은 제도 담화로 정의되고(Drew and Heritage 1992; Partington 2008) 격식과 비격식적 특징을 지닌다. 격식적 특징은 TV나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비격식적 특징으로는 주요 참가자인 대변인과 기자단의 상화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브리핑은 주요 3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1) 인사하기 2) 간단한 보고 및 최근 정보 요약 3) 질의응답이다. 회의 호스트는 참가자들에게 간단히 인사한다. 그리고 전염병에 관한 최근 정보를 회견을 통해서 전달한다. 브리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질의 응답 시간이다. 조직의 참가자들과 기자로 구성되어 진행되는데 국내 질병 관리 본부에서 코로나 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브리핑과 같은 정치 제도 담화 내 체면 위협성은 사회적 관계에 따라 증가된다. 말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완화 장치 사용이 더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담화 내 완화 장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완화 장치는 Hyland의 영향으로 쓰기 담화에서 주로 많이 연구되어 있다. Fraser (2010)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완화 장치들을 분석하고 주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완화 장치는 브리핑 담화 내 도전적 질문을 다루는데 있어서 완화 장치는 모호해지고 암시적으로 됨으로써 화자가 지니게 되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줄일 수가 있다.

2.2. 완화 장치 이전 연구

완화 장치 분류의 주요 연구로 Prince et al. (1982), Salager-Meyer (1994), 그리고 Fraser (2010)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세 연구는 완화 장치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언어 장치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Prince et al. (1982)는 완화 장치를 수식어과 부가절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Salager-Meyer (1994)는 조동사, 형용사와 같은 6가지 문법 장치 Fraser는 형태 기능 범주로 문법 장치 외에 화용적 장치들도 포함하였다.

여러 완화 장치 가운데 양상 조동사와 양상 부사는 태 (modality)라는 문법적 용어가 나타내듯이 화자의 견해나 의미를 부여하는 주요 장치로 포함된다. 양상 부사의 경우 원어민과 학습자의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로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따르는 차이를 들 수 있다. 원어민 화자들의 경우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양상 부사를 사용하는 반면 학습자들의 경우는 확실성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Hyland 2000; Takimoto 2015). 이런 차이를 어휘 비가시적 가설 (Lexical invisibility hypothesis)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에 비해서 더 가시적이라는 설명으로 확실성 부사가 불확실성 부사보다 학습자에게는 더 가시적이라는 설명이다.

Fraser (2009)는 대명사를 거리 두기 전략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명사는 화자의 관점을 나타내는 장치로 주관적 객관적 구조에 기여한다. 인칭 대명사에서 비인칭 대명사로 전환되는 경우 주관적 객관적 관점을 형성하기도 한다. 상호 관계적 차원에서 주관적 관점은 I 와 you 관점에서 말하고 객관적 구성은 it나 we와 같은 대명사가 사용된다. 원어민 화자의 경우 객관적 구조로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학습자들은 문법적 해석에 치중된 주관적 관점에 치중된다.

본 연구에서는 완화 장치 관련 비교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세 가지 완화 장치를 분석하였다. 양상 동사는 영어의 핵심 동사 (core modal verbs) 9개를 포함하고 양상 부사는 이전

연구에서 가장 빈도수 높은 500개 단어에 포함된 8개 부사를 포함하였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부사로 각각 4개씩 포함되었다. 대명사는 주관적 관점과 객관적 관점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해서 각각 2개씩 총 4개를 포함했다. 따라서 총 21개의 어휘가 포함되었다.

인식 조동사: can; will; could; would; may; might; shall; should; must

양태 부사: really; actually; probably; maybe; exactly; certainly; definitely; kind of

대명사: I; you; we; it

3. 연구 방법과 분석

3.1. 코퍼스 자료

연구 자료는 국제 보건 기구와 백악관 브리핑 회담을 바탕으로 구축된 코퍼스를 사용하였다.

WHO 코퍼스는 홈페이지에 올려진 동영상과 PDF 문서로부터 생성되었다. 2020년 2월 이후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이전과 달리 현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적 확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시작되었다. 국제 보건 기구 기자 브리핑은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실시 되고 비디오로 녹음 공개되었다. 본 자료는 3월 11일 공식적으로 코로나 발발이 선포된 날로부터 5일 간 이루어진 회의내용이 수집되었다. 코퍼스 자료는 줌 기자 회견 영상에서 pdf 텍스트로 전환된 문서를 사용하였다. 이 텍스트는 총 50,730 단어를 포함한다.

백악관 브리핑 자료는 비슷한 시기에 Youtube를 통해 제공된 영상으로 5일 간 제공된 영상을 기반으로 동일한 주제를 위해서 같은 날 3월 11일 코로나 관련 보건 브리핑 자료를 발췌하였다. 보건과 팬데믹에 중점을 둔 기자 회견 비디오를 자료로 삼았다. 이 영상들은 미국 정부가 대중들에게 공식 입장을 밝힌 기자 회견을 기반으로 한다. 백악관 브리핑은 내용상 유튜브 영상에서 자막을 선택하여 텍스트화 코퍼스 자료로 전환하였다. 코퍼스 자료는 유튜브 영상의 자막 제공 앱인 구글 LLL 프로그램을 사용 자막을 추출 텍스트 문서화 하고 총 74,931 단어로 이루어졌다.

3.2. 완화 장치 선별과 코딩

자료 분석은 콘코던스 프리그램인 Ant Con을 이용 목표 어휘 빈도수를 추출하고 두 자료 간 총 어휘 수의 차이를 고려 동일시 하기 위해서 빈도수는 원자료 빈도수 (raw frequency) 는 정규 빈도수 (normalized frequency)로 환산되었다.

4. 연구 분석

4.1. 완화 장치 사용 빈도수

세 가지 완화 장치 양상 동사, 양상 부사, 그리고 대명사 정규화된 빈도수로 환산된 결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었다.

<표1> 두 코퍼스 간 완화 장치 빈도수

| 항목 1 | WHO 코퍼스 | 백악관 코퍼스 |
|--------|--------------|--------------|
| 대명사 | 57,441 (72%) | 81,781 (80%) |
| 양상 조동사 | 18,510 (23%) | 14,786 (15%) |
| 양상 부사 | 4,278 (5%) | 5,151 (5%) |
| 총 빈도수 | 80,229 | 101,718 |

U.S와 WHO 브리핑 분석 결과는 세 종류의 완화 장치 빈도수에서 유사점을 보여준다. 두 자료에서 모두 대명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조동사가 두 번째로 그리고 부사가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부사는 두 코퍼스에서 5%대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었고 조동사와 대명사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양상 조동사는 WHO 자료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고 (23% > 15%) 대명사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80% > 72%).

4.2. 통계 분석을 통한 두 코퍼스 간의 차이

백악관 브리핑과 WHO 브리핑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 ANOVA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양상 조동사, 양상 부사, 그리고 대명사에서 빈도수에서 두 코퍼스 자료는 차이를 보였지만 통계 분석 결과는 두 코퍼스 간의 차이가 통계상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F(4.1)=0.81.n.s.).

<표2> 두 코퍼스 간 통계 분석

| Source of V. | SS | df | MS | F | P-value | F crit |
|--------------|------------|----|----------|-------------|----------|----------|
| Between | 76962853.5 | 1 | 76962854 | 0.061579326 | 0.816236 | 7.708647 |
| Within | 4999265768 | 4 | 1.25E+09 | | | |
| Total | 5076228622 | 5 | | | | |

4.3. 브리핑 코퍼스에서 양상 조동사 사용 실태

영어 양상 조동사 연구에서 언급하듯이 영어 코어 양상 조동사 가운데 can, will, would, 그리고 could의 사용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코퍼스 분석에서도 상위 4개의 조동사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표3> 양상 조동사 빈도수

| 항목 1 | WHO 코퍼스 | 백악관 코퍼스 |
|-------|---------|---------|
| can | 62 | 77 |
| will | 37 | 66 |
| would | 15 | 52 |
| could | 4 | 23 |

상위 4개의 양상 조동사 빈도수는 두 코퍼스에서 같은 순위로 사용되었다. 빈도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형 두 개의 조동사가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과거형에서는 would 사용이 could 사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can > will > would > could

영어 조동사에서는 4가지 조동사가 많이 사용된다. 빈도수를 보게 되면 can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두 번째로 will이 많이 사용된다. 과거형 could와 would에서는 would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상 영어에서 could가 would보다 높게 나오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결과는 브리핑이라는 제도 담화 특성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could의 사용이 불확실성 회피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백악관 코퍼스와 WHO 코퍼스의 차이로는 상위 양상 조동사의 분포도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악관 코퍼스의 경우 can, will, would가 골고루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에 비해서 WHO 브리핑의 경우는 can의 사용이 다른 양상 동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브리핑 코퍼스에서 양상 부사 사용 실태

두 자료 모두 확실성 부사가 불확실성 부사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백악관 코퍼스에서는 확실성 부사가 65% 불확실성 부사는 35%가 사용되었고 WHO 코퍼스에서는 확실성 부사가 81% 불확실성 부사는 19%가 사용되었다.

<표4> 양상 부사 빈도수

| | WHO 브리핑 | | 백악관 브리핑 | |
|------|------------|------|------------|------|
| | 원자료 빈도수 | 정규화 | 원자료 빈도수 | 정규화 |
| 양상부사 | | | | |
| 확실성 | 175 (81%) | 3449 | 250 (65%) | 3336 |
| 불확실성 | 42 (19%) | 829 | 136 (35%) | 1815 |
| 총빈도수 | 217 (100%) | 4278 | 386 (100%) | 5151 |

이런 결과는 이전 연구와 비교해서 원어민 화자들의 경우 불확실성 부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대치된다. 이 결과는 브리핑이라는 장르상 성격과 연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상 담화에서는 불확실성 부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비해서 브리핑은 전문가 담화로 자신감의 결여

는 메시지의 혼돈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5. 논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따르면 공식 석상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완화 장치 사용에 대해 몇 가지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전문가 비원어민 화자들은 원어민 화자들의 완화 장치 사용에서 빈도수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양상 조동사 양상 부사 그리고 대명사의 빈도수에서 두 그룹의 영어 화용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원어민 화자들과 영어 학습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완화 장치 차이와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전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골고루 사용하지 않고 특정 요소에 치우치게 사용하는 (can 의존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결과에 비해서 전문가 비원어민 화자들은 영어 학습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 완화 장치 사용은 형식성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완화 장치 사용에 있어서 일상 언어와 브리핑 담화 속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원어민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완화 장치 사용에 있어서 확실성 장치보다 불확실성 장치 사용이 더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비해서 브리핑 담화 속 완화 장치에서는 불확실성 장치보다 확실성 장치에 대한 사용이 선호되었다. 예를 들어 양상 부사 사용에서 두 코퍼스 모두에서 확실성 부사가 불확실성 부사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브리핑 담화의 목적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모호한 발언은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확실성 부사 사용이 두드러졌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 목적 기반으로 확실성 장치 선호는 양상 조동사 사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과거형 양상 조동사 could와 would 사용에서 일상 영어에서는 could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브리핑 담화 분석에서는 would 사용이 could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장치 중의 하나인 could의 가능성이나 의심의 의미로 비슷한 회피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개의 영어권 브리핑 코퍼스가 지니는 공통된 패턴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영어 화용적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 양상 조동사의 경우는 네 개의 조동사가 상위 빈도수 높은 조동사로 포함되었고 이 결과는 이전의 일상 영어 코퍼스에서도 나타난 패턴과 비슷하다. 영어 양상 조동사에서 can, will, could, 그리고 would가 담화의 종류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상위 빈도수 높은 조동사로 사용되었다. 양상 부사 사용에 있어서도 불확실성보다 확실성 부사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문가 비원어민 화자들의 화용 능력에 대한 견해를 지지한다.

6. 참고 문헌

- Coates, J. (1987). "Epistemic modality and spoken discourse".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85(1), 110-131.
- Drew, P., & Heritage, J. (1992). *Talk at work: Interaction in institutional set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Fraser, B. (2009). "Hedging in political discourse: The 2007 Bush press conference". In *Papers from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litical Discourse*. 201-213.
- Halliday, M., (201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London.
- Holmes, J. (1988). "Doubt and certainty in ESL textbooks". *Applied linguistics* 9(1), 21-44.
- Hyland, K. (1998). "Boosting, hedging and the negotiation of academic knowledge". *Text-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the Study of Discourse* 18(3), 349-382.
- Hyland, K. (2000). Hedges, boosters and lexical invisibility: Noticing modifiers in academic texts. *Language awareness*, 9(4), 179-197.
- Jenkins, J. (2009).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terpretations and attitudes". *World Englishes* 28(2), 200-207.
- Kasper, G., & Blum-Kulka, S. (Eds.). (1993). *Interlanguage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cskes, I. (2015). "Intercultural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86, 43-47.
- Partington, A. (2008). "Teasing at the White House: A corpus-assisted study of face work in performing and responding to teases". *Text & Talk* 28(6), 771-792.
- Prince, E. F., Frader, J., & Bosk, C. (1982). "On hedging in physician-physician discourse". *Linguistics and the Professions* 8(1), 83-97.
- Salager-Meyer, F. (1994). "Hedges and textual communicative function in medical English written discours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3(2), 149-170.
- Takimoto, M. (2015). "Assertions and lexical invisibility in EFL learners' academic essays". *Journal of Pragmatics* 89, 85-99.
- Yang, A., Zheng, S. Y., & Ge, G. C. (2015). "Epistemic modality in English-medium medical research articles: A systemic functional perspectiv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8, 1-10.

백악관 브리핑 영상 자료

3/17 <https://www.youtube.com/watch?v=skMdBYNDfDk>

3/19 https://www.youtube.com/watch?v=C_s2YaY05Mo

3/20 <https://www.youtube.com/watch?v=Kbjdwn3aR2E>

3/25 <https://www.youtube.com/watch?v=TFSAdx4NWeg>

3/27 https://www.youtube.com/watch?v=L8x_5-ZTR70